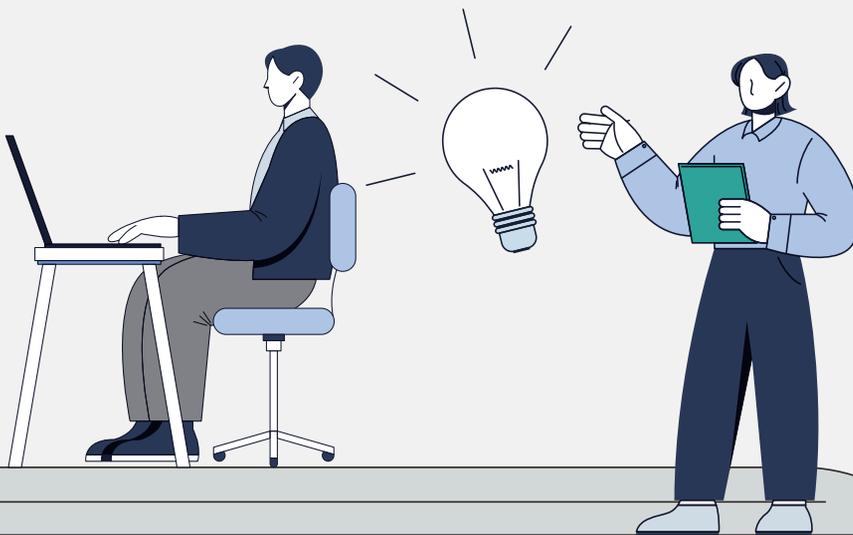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 보고서



 2024학년도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 요약	
I.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 요약	1
 2024학년도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 보고서	
I. 서론	7
II. 연구 방법	7
1. 조사 내용	7
2. 분석 방법	8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
III. 연구 결과	10
1. 인권침해 피해 경험	10
2. 인권센터	31
IV. 제언	41



2024학년도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 요약



2024학년도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 요약

I. 2024학년도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 요약

- 2024학년도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는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605명으로 남성 367명(60.7%), 여성 238명(39.3%)이었다. 실태조사 문항은 재학생의 기본정보, 인권침해 피해 경험, 인권센터에 대한 영역이 포함되었다.
- 실태조사 주요 문항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기본정보 영역에서 학생의 캠퍼스는 충주 캠퍼스가 447명 73.9%로 가장 많았으며, 소속 단과대학은 인문사회대학이 147명 24.3%로 가장 많았고, 학년은 1학년이 236명 39.1%로 가장 많았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367명 60.7%로 여성보다 더 많았다.
- 인권침해 피해 경험 영역에서는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답변으로는 '가끔 접한다'가 342명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교적 자주 접한다', '거의 접하지 않는다', '거의 매일 접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 피해 경험 부분에서는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대학생활에서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가장 많이 선택된 문항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로 51명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외모 등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병력(질병, 질환)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출신 고등학교(기타 그 밖의 학력 인정)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장애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인종 또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종교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입학전형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순으로 차별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차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직원', '동기', '기타', '대학원생', '선배', '조교', '후배'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으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91명 79.8%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사한 차별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270명 44.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 부분에서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문항은 ‘개인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단결을 앞세워 단체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공포감이 조성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로 20명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MT, OT, 연구실 모임, 사은회 등과 같은 학내 행사에서 장기자랑 등의 이유로 노래나 춤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옷차림, 머리모양, 문신 등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업 및 학업과 관련된 행사 이외의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생활(연애, 친구관계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학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특정 이념·사상을 억압하거나 수용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금품, 선물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교수’, ‘선배’, ‘동기’, ‘기타’, ‘조교’, ‘대학원생’, ‘후배’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으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52명 61.1%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사한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가 254명 4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부분에서는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문항은 ‘언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로 10명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성적 매수(bribery) 시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시각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교수’, ‘대학원생’, ‘조교’, ‘선배’, ‘동기’,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으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43명 57.4%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사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가 262명 43.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폭력 피해 경험 부분에서는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문항은 ‘욕설, 폭언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로 15명이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명예훼손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순서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에 대해서는 ‘교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동기’, ‘직원’, ‘기타’, ‘조교’, ‘대학원생’, ‘선배’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으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42명 47.8%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유사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가 225명 37.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 인권센터 영역에서는 인권센터 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399명 66%로, ‘모른다’가 206명 34%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정보 경로에 대하여 ‘팸플릿, 포스터’가 142명 35.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학과 홈페이지’, ‘학과 SNS’, ‘신입생 OT’, ‘교수, 선배, 친구’, ‘기타’, ‘교내방송’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역할에 대하여 ‘인권침해 고충 상담’이 276명 4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인권침해 사건 처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도움 요청 의사 여부는 ‘있다’가 549명 90.7%, ‘없다’가 56명 9.3%로 나타났다.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하고 싶은 인권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캠페인’이 2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모전’, ‘교육(특강 등)’, ‘인권 서포터즈’, ‘성·인권 고충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1순위는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가 392명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캠페인, 서포터즈, 공모전 등)’이 245명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순위는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가 312명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인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234명으로 나타났다.

- 본 실태조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 피해,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폭력 피해 경험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인권침해 등 피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에 대해 홍보하고 상담 및 신고 절차 안내, 사이버 신고센터 안내 등 정보 제공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인권센터가 어렵고 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안내를 통해 인권센터에 대해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인권센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 및 사건 처리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다섯째, 인권센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와 절차,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안내를 통해 신고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이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인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여섯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여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인권 고충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인권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센터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교육 및 캠페인 운영,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인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기간 : 2024. 4. 8.~2024. 6. 30.)

2024학년도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 보고서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내용
 - 2. 분석 방법
 -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III. 연구 결과
 - 1. 인권침해 피해 경험
 - 2. 인권센터
- IV. 제언

2024학년도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 보고서

I. 서론

본 2024학년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 인권침해(갑질 등)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 조사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들의 인권침해 및 인권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인권 친화적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학생들을 위한 인권센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 인권센터의 서비스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내용

가. 조사 설계 및 목적

<표 1> 실태조사 및 요구 조사를 위한 설계

구분	세부 내용
모집단	2024학년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학생
유효표본	605명
조사도구	자기보고식 설문지(온라인)
조사기간	2024. 4. 8.(월)-6. 30.(일)

나. 분석 내용

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조사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부분에는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다음은 '인권침해 피해 경험'에 관련된 부분이며, 마지막 부분은 '인권센터'와 관련된 부분이다. 본 설문조사에 포함된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실태조사 및 요구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기본정보	재학 중인 캠퍼스, 단과대학, 학년, 성별
인권침해 피해 경험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 차별 피해 경험,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경험, 기타 피해 경험
인권센터	인권센터 인지 여부, 인권센터 정보 경로, 인권센터 역할, 인권센터 도움 요청 의사 여부, 요청할 의사가 없는 이유, 참여하고 싶은 인권센터 프로그램, 인권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인권센터의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 분석 방법

본 조사는 2024학년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05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구글 설문지, 엑셀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설문지 응답 중 무응답을 포함한 경우, 무응답에 한해 결측치 처리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캠퍼스

본 조사 대상자의 캠퍼스 분포는 '충주 캠퍼스' 447명 73.9%, '증평 캠퍼스' 71명 11.7%, '의왕 캠퍼스' 87명 14.4%로 나타났다.

〈표 3〉 캠퍼스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충주 캠퍼스	447	73.9
증평 캠퍼스	71	11.7
의왕 캠퍼스	87	14.4
전체	605	100

나. 단과대학

단과대학의 분포는 '인문사회대학'이 147명 2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과대학' 144명 23.8%, '융합기술대학' 137명 22.6%, '철도대학' 82명 13.6%, '보건생명대학' 70명 11.6%, '미래융합대학' 23명 3.8%, '자유전공학부' 2명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소속대학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공과대학	144	23.8
미래융합대학	23	3.8
보건생명대학	70	11.6
융합기술대학	137	22.6
인문사회대학	147	24.3
자유전공학부	2	0.3
철도대학	82	13.6
전체	605	100

다. 학년

학년 분포는 ‘1학년’이 236명 39.1%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134명 22.1%, ‘2학년’ 120명 19.8%, ‘4학년’ 110명 18.2%, ‘5학년 이상’은 5명 0.8%로 나타났다.

〈표 5〉 학년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1학년	236	39.1
2학년	120	19.8
3학년	134	22.1
4학년	110	18.2
5학년 이상	5	0.8
전체	605	100

라. 성별

성별 분포는 ‘남성’이 367명 60.7%, ‘여성’이 238명 39.3%로 나타났다.

〈표 6〉 성별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남성	367	60.7
여성	238	39.3
전체	605	100

Ⅲ. 연구 결과

1. 인권침해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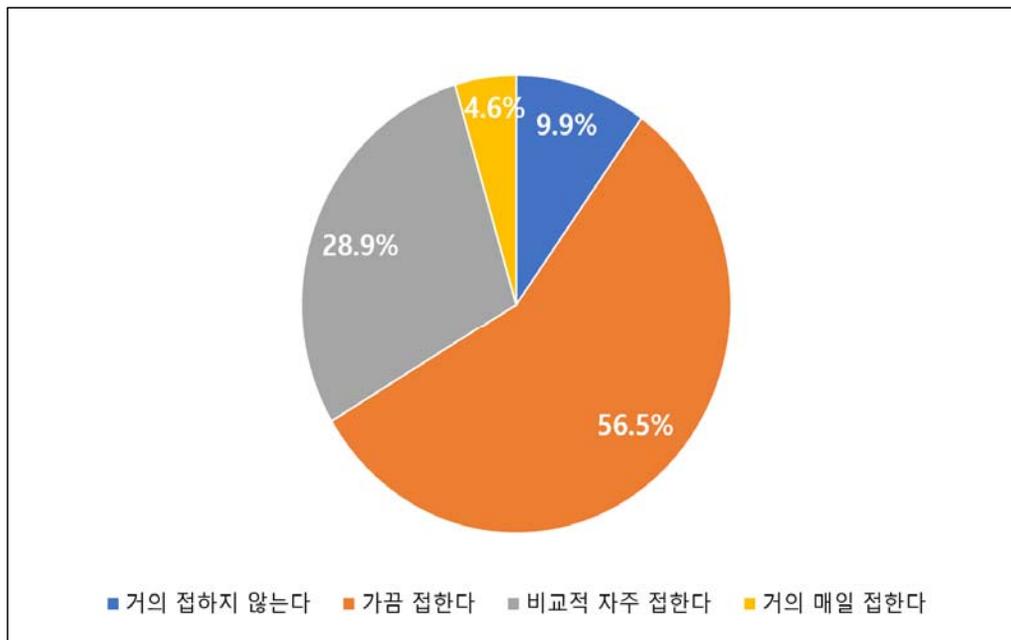
가.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

평소에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에 대한 답변으로는 ‘가끔 접한다’가 342명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교적 자주 접한다’ 175명 28.9%, ‘거의 접하지 않는다’ 60명 9.9%, ‘거의 매일 접한다’ 28명 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거의 접하지 않는다	60	9.9
가끔 접한다	342	56.5
비교적 자주 접한다	175	28.9
거의 매일 접한다	28	4.6
전체	605	99.9



〔그림 1〕 평소 ‘인권’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정도

나. 차별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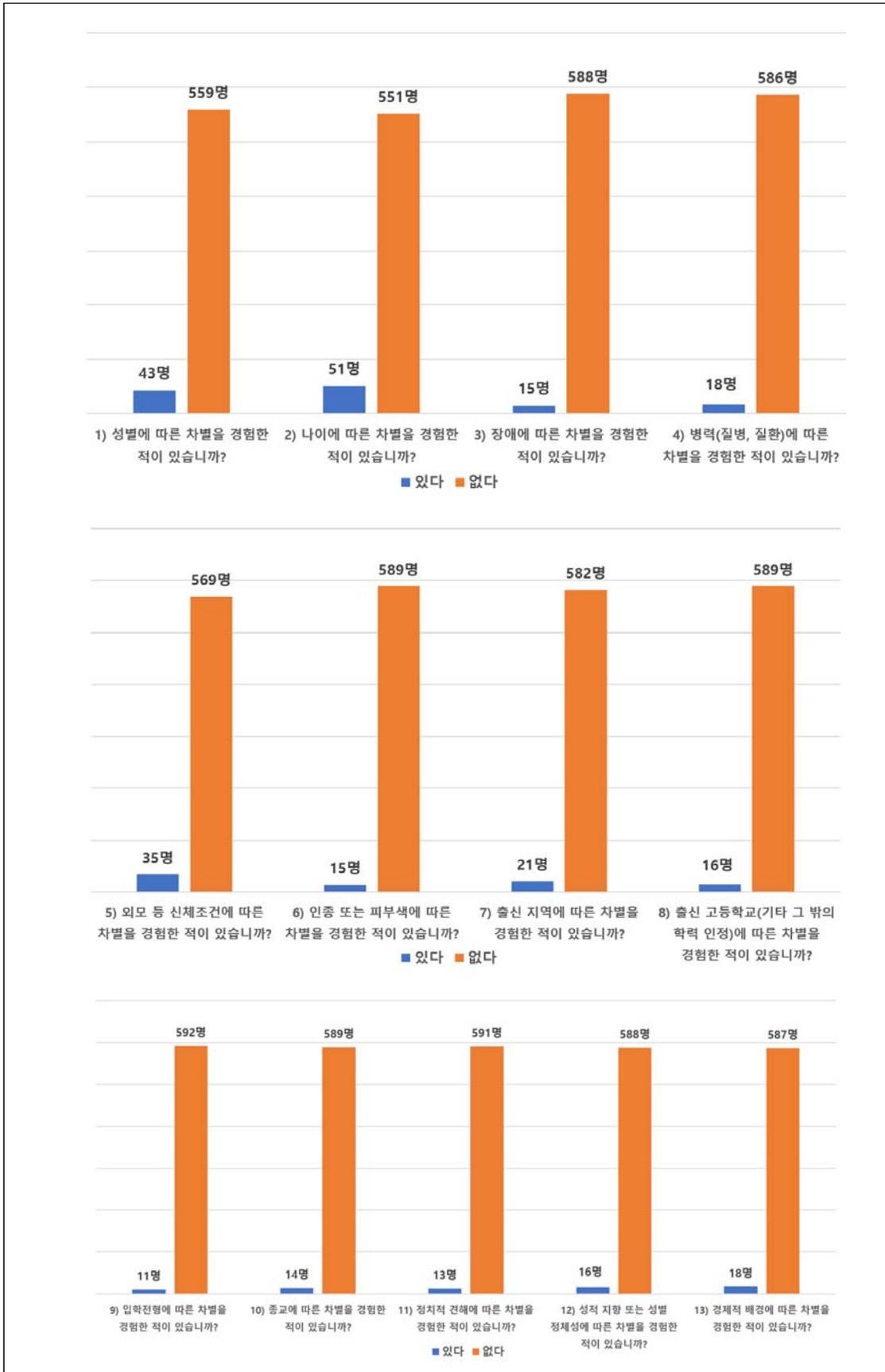
1)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대학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대학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문항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로 51명이 응답하였다.

〈표 8〉 차별 피해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1)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43	559	602
2)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51	551	602
3) 장애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5	588	603
4) 병력(질병, 질환)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8	586	604
5) 외모 등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5	569	604
6) 인종 또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5	589	604
7)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1	582	603
8) 출신 고등학교(기타 그 밖의 학력 인정)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6	589	605
9) 입학전형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1	592	603
10) 종교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4	589	603
11)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3	591	604
12)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6	588	604
13)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8	587	605



[그림 2] 차별피해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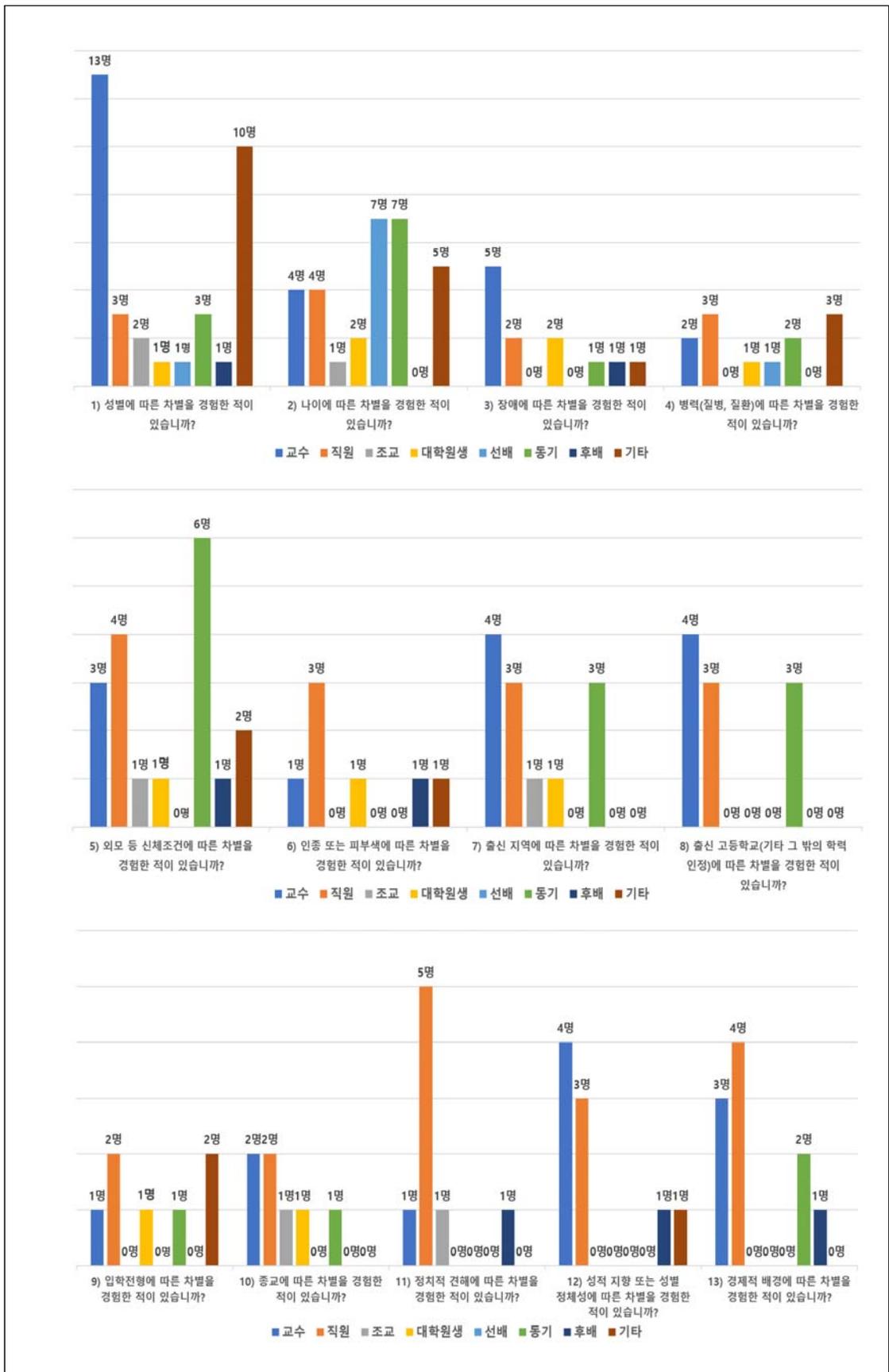
2) 차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차별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중에 행위자에 관한 질문에는 '교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직원', '동기', '기타', '대학원생', '선배', '조교', '후배'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차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단위: 명)

구분	교수	직원	조교	대학원생	선배	동기	후배	기타
1)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3	3	2	1	1	3	1	10
2) 나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4	4	1	2	7	7	0	5
3) 장애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5	2	0	2	0	1	1	1
4) 병력(질병, 질환)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3	0	1	1	2	0	3
5) 외모 등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	4	1	1	0	6	1	2
6) 인종 또는 피부색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3	0	1	0	0	1	1
7)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4	3	1	1	0	3	0	0
8) 출신 고등학교(기타 그 밖의 학력 인정)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4	3	0	0	0	3	0	0
9) 입학전형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2	0	1	0	1	0	2
10) 종교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2	1	1	0	1	0	0
11)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5	1	0	0	0	1	0
12)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4	3	0	0	0	0	1	1
13) 경제적 배경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	4	0	0	0	2	1	0



[그림 3] 차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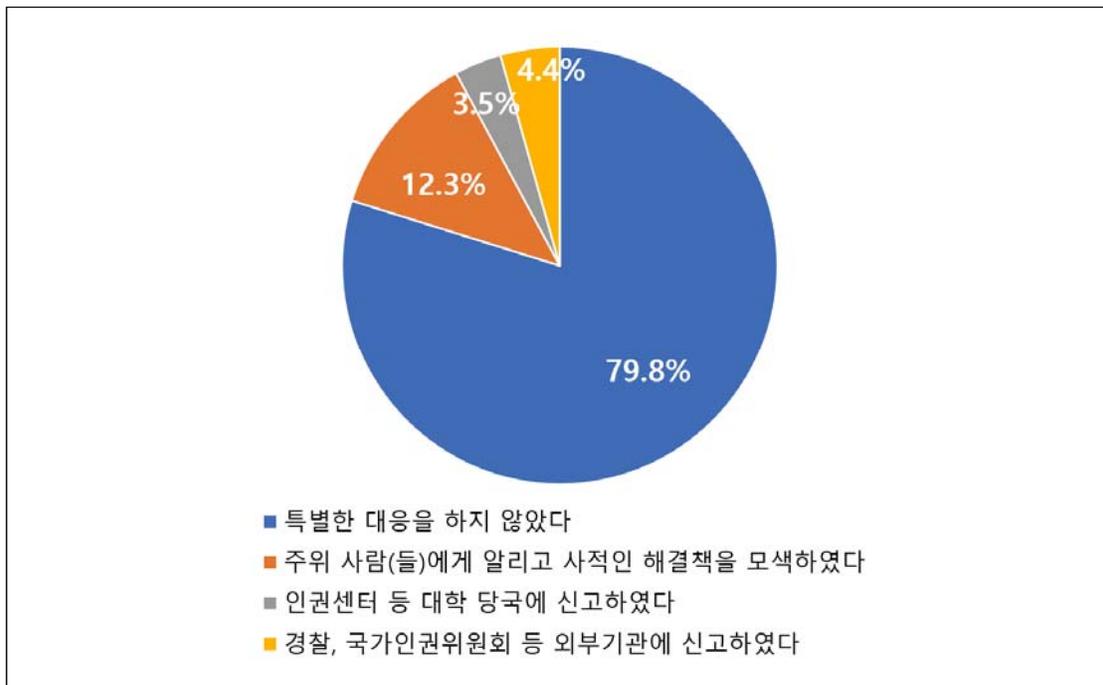
3) 차별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차별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으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91명 79.8%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14명 12.3%,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5명 4.4%,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4명 3.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0〉 차별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91	79.8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14	12.3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4	3.5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5	4.4
전체	114	100



[그림 4] 차별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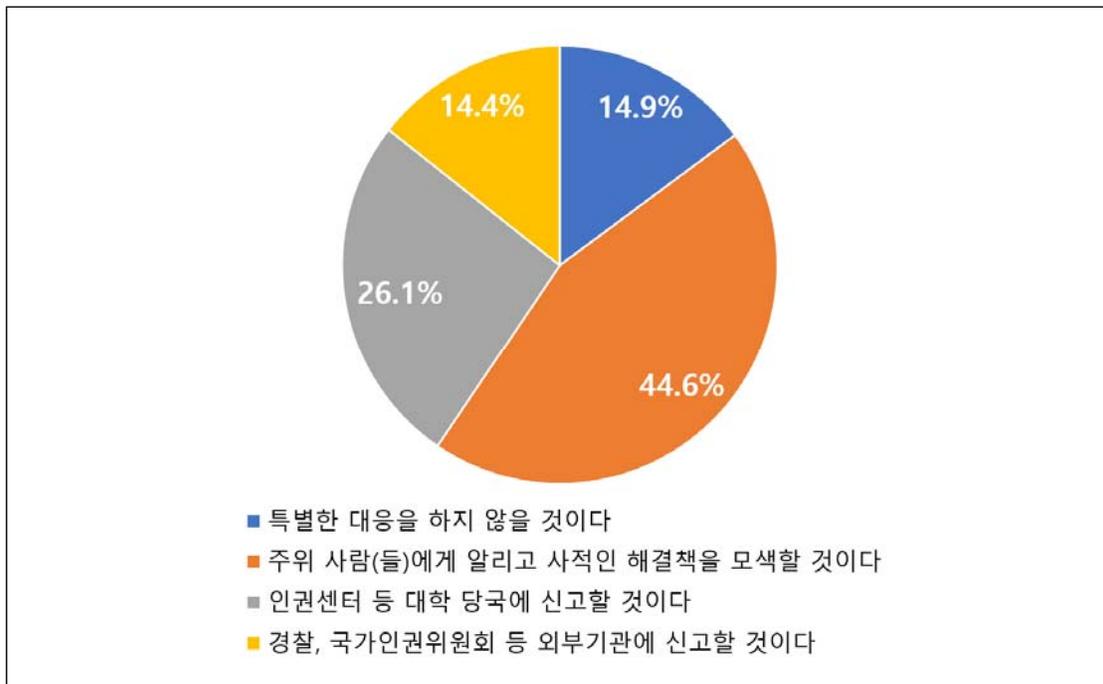
4) 유사한 차별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유사한 차별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270명 44.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158명 26.1%,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90명 14.9%,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87명 14.4%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1〉 유사한 차별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90	14.9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270	44.6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158	26.1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87	14.4
전체	605	100



[그림 5] 유사한 차별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다.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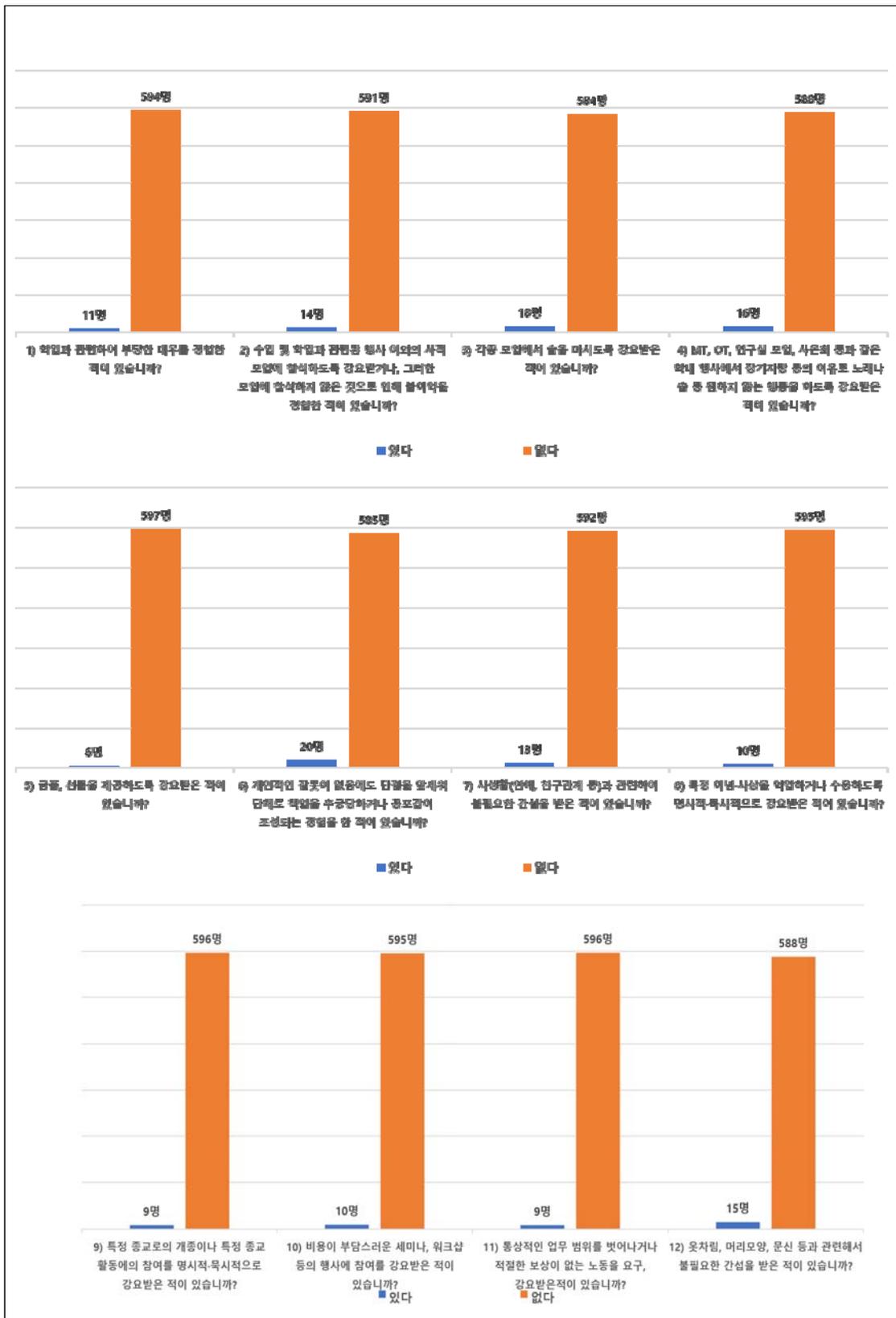
1)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문항은 '개인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단결을 앞세워 단체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공포감이 조성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로 20명이 응답하였다.

〈표 12〉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1) 학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유급 등을 언급하는 경우, 진로 및 미래 경력 개발에 부정적일 수 있는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논문이나 레포트를 갈취하는 경우, 지도교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11	594	605
2) 수업 및 학업과 관련된 행사 이외의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4	591	605
3)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18	584	602
4) MT, OT, 연구실 모임, 사은회 등과 같은 학내 행사에서 장기 자랑 등의 이유로 노래나 춤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16	588	604
5) 금품, 선물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6	597	603
6) 개인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단결을 앞세워 단체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공포감이 조성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20	585	605
7) 사생활(연애, 친구관계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3	592	605
8) 특정 이념·사상을 억압하거나 수용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10	595	605
9)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9	596	605
10)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 받은 적이 있습니까?	10	595	605
11)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9	596	605
12) 옷차림, 머리모양, 문신 등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5	588	603



[그림 6]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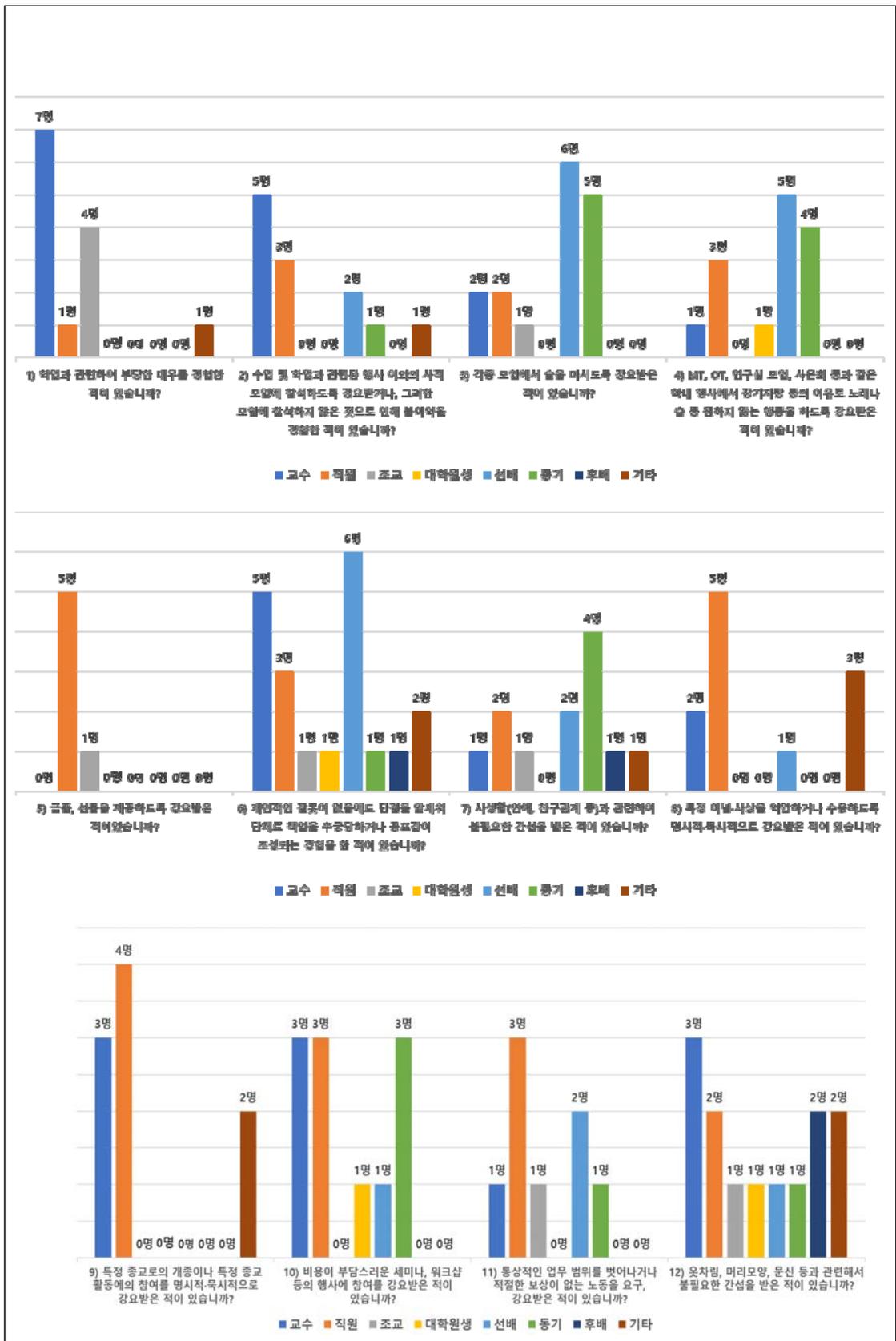
2)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 행위자에 관한 질문에는 '직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교수', '선배', '동기', '기타', '조교', '대학원생', '후배'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단위: 명)

구분	교수	직원	조교	대학원생	선배	동기	후배	기타
1) 학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7	1	4	0	0	0	0	1
2) 수업 및 학업과 관련된 행사 이외의 사적 모임에 참석하도록 강요받거나, 그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5	3	0	0	2	1	0	1
3) 각종 모임에서 술을 마시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2	2	1	0	6	5	0	0
4) MT, OT, 연구실 모임, 사은회 등과 같은 학내 행사에서 장기자랑 등의 이유로 노래나 춤 등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1	3	0	1	5	4	0	0
5) 금품, 선물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0	5	1	0	0	0	0	0
6) 개인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단결을 앞세워 단체로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공포감이 조성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5	3	1	1	6	1	1	2
7) 사생활(연애, 친구관계 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2	1	0	2	4	1	1
8) 특정 이념·사상을 억압하거나 수용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2	5	0	0	1	0	0	3
9) 특정 종교로의 개종이나 특정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3	4	0	0	0	0	0	2
10) 비용이 부담스러운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에 참여를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3	3	0	1	1	3	0	0
11)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적절한 보상이 없는 노동을 요구,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1	3	1	0	2	1	0	0
12) 옷차림, 머리모양, 문신 등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간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	2	1	1	1	1	2	2



[그림 7]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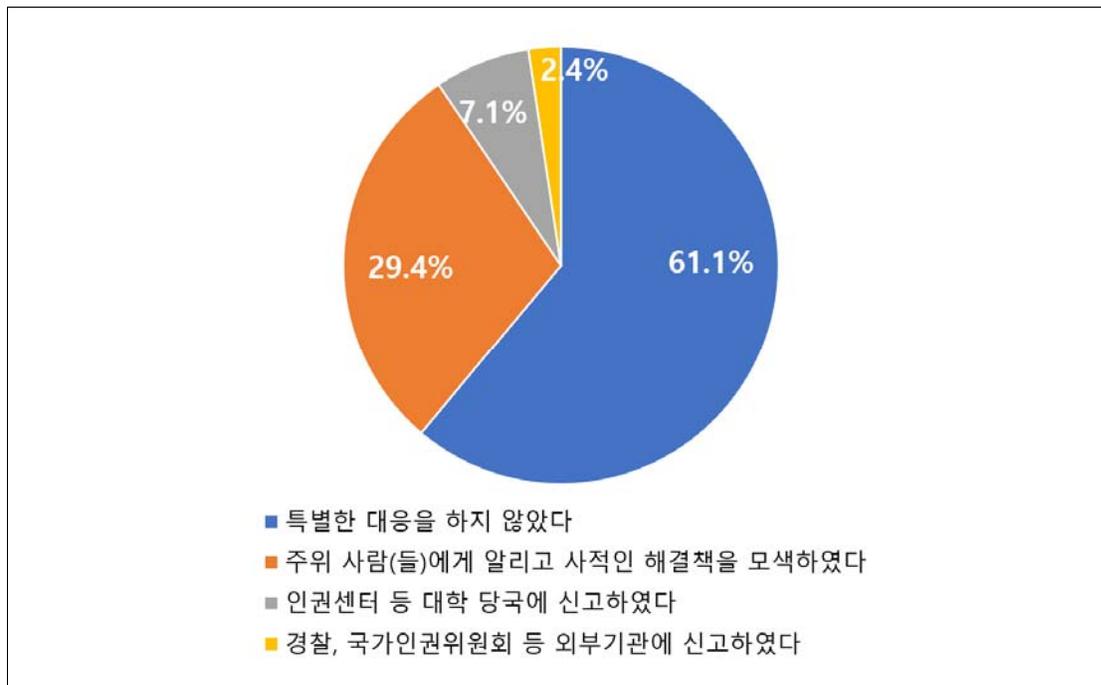
3)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으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52명 61.1%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25명 29.4%,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6명 7.1%,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2명 2.4%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4〉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52	61.1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25	29.4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6	7.1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2	2.4
전체	85	100



[그림 8]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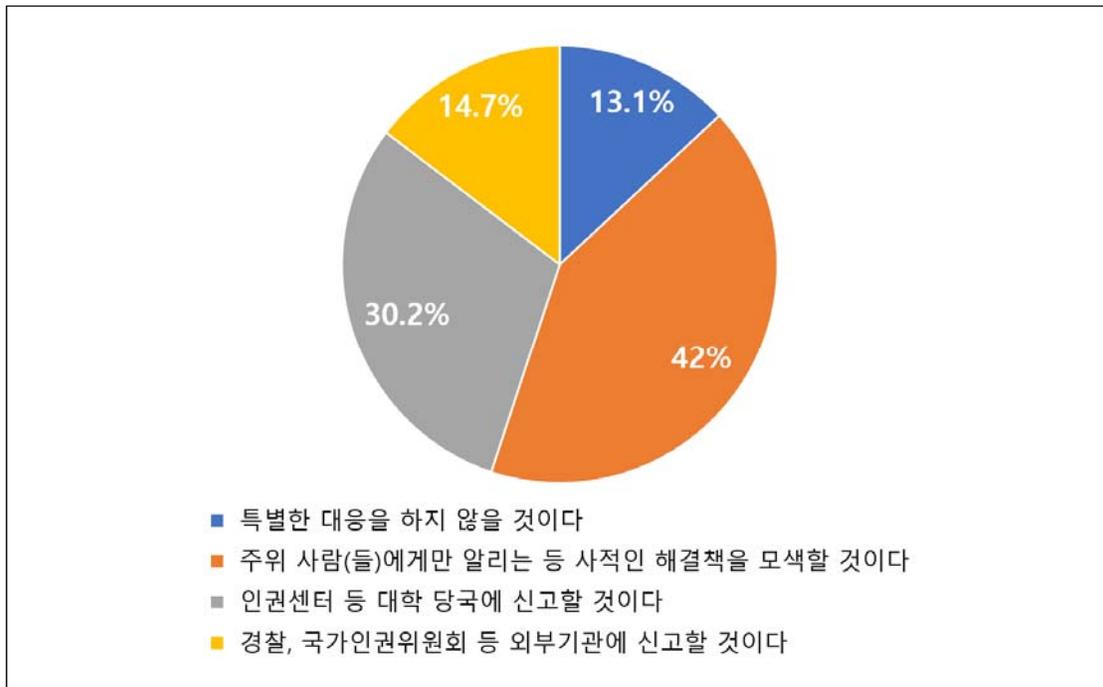
4) 유사한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유사한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254명 4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183명 30.2%,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89명 14.7%,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79명 13.1%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5〉 유사한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79	13.1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254	42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183	30.2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89	14.7
전체	605	100



[그림 9] 유사한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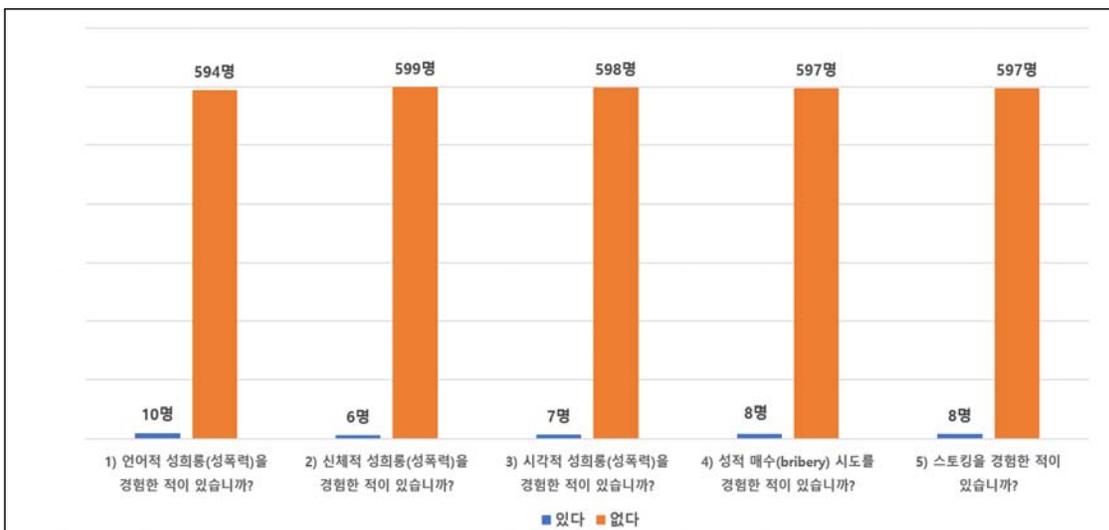
1)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문항은 ‘언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로 10명이 응답하였다.

〈표 16〉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1) 언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불쾌한 성적 언급(수업·실습·모임 중 불쾌감을 줄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표현) - 원하지 않는 관심·친밀감 표현(일방적 관심 표현, 외모평가, 성적 흥미나 요구에 대한 표현) - 원하지 않는 지속적인 사적 전화 또는 방문 - 원하지 않는 노골적인 성적 제안(자고 가라, 같이 자자 등)	10	594	604
2)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손잡기, 허벅지에 손 올려놓기, 껴안기, 키스하기 등) - 불쾌한 보디랭귀지(반복적 결눈질, 지나치게 밀착해서 서 있는 것 등)	6	599	605
3) 시각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불쾌감을 주는 성적 자료 열거(수업·실습·모임 중 불쾌감을 줄 정도로 성적 사진, 삽화를 보여주는 것 등)	7	598	605
4) 성적 매수(bribery) 시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성적 제공의 대가로 더 높은 점수를 주거나, 다른 이익을 주거나, 무엇인가의 교환으로 협박	8	597	605
5)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8	597	605



[그림 10]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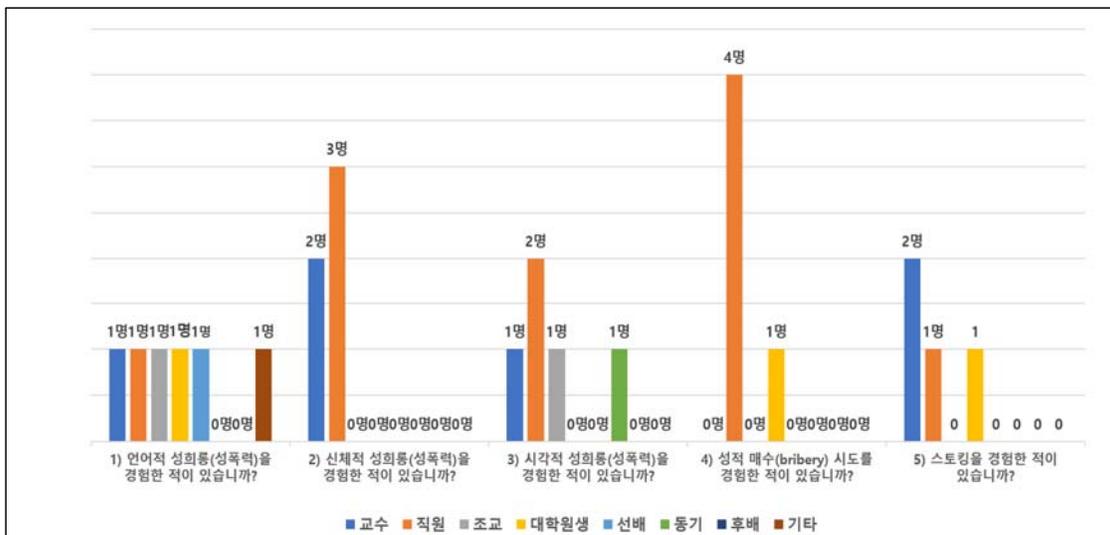
2)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 행위자에 관한 질문에는 '직원'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교수', '대학원생', '조교', '선배', '동기',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단위: 명)

구분	교수	직원	조교	대학원생	선배	동기	후배	기타
1) 언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1	1	1	1	0	0	1
2) 신체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3	0	0	0	0	0	0
3) 시각적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2	1	0	0	1	0	0
4) 성적 매수(bribery) 시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0	4	0	1	0	0	0	0
5) 스토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2	1	0	1	0	0	0	0



〈그림 11〉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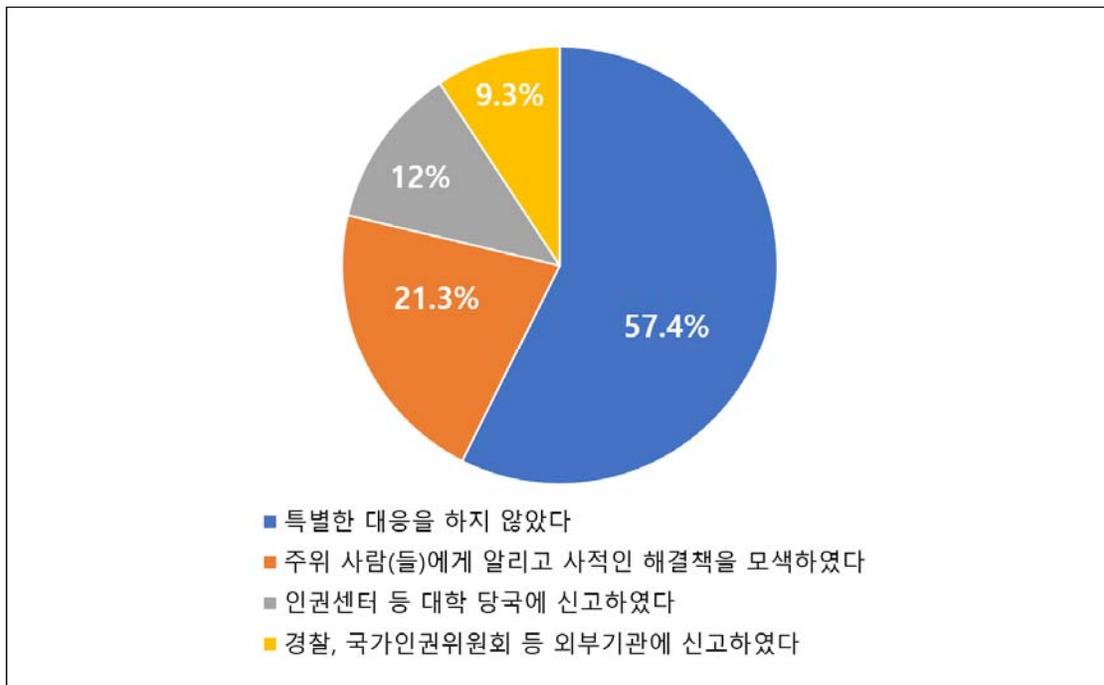
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으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43명 57.4%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16명 21.3%,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9명 12%,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7명 9.3%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8〉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43	57.4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16	21.3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9	12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7	9.3
전체	75	100



[그림 12]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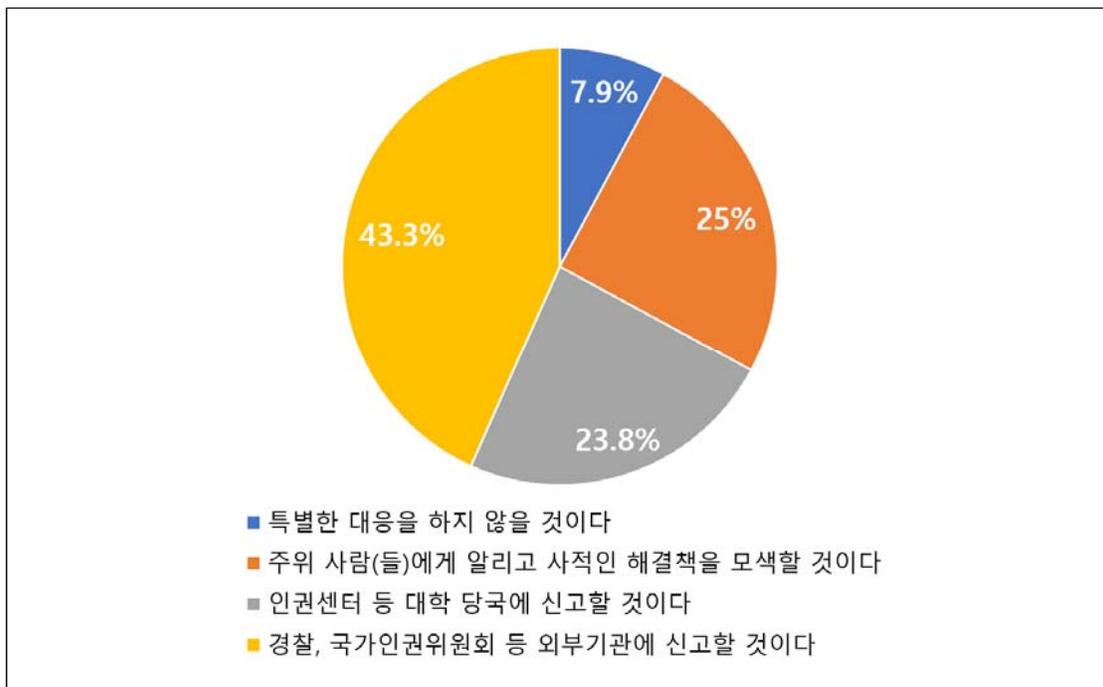
4)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가 262명 43.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151명 25%,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144명 23.8%,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48명 7.9%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9〉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48	7.9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151	25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144	23.8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262	43.3
전체	605	100



[그림 13]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마. 폭력 피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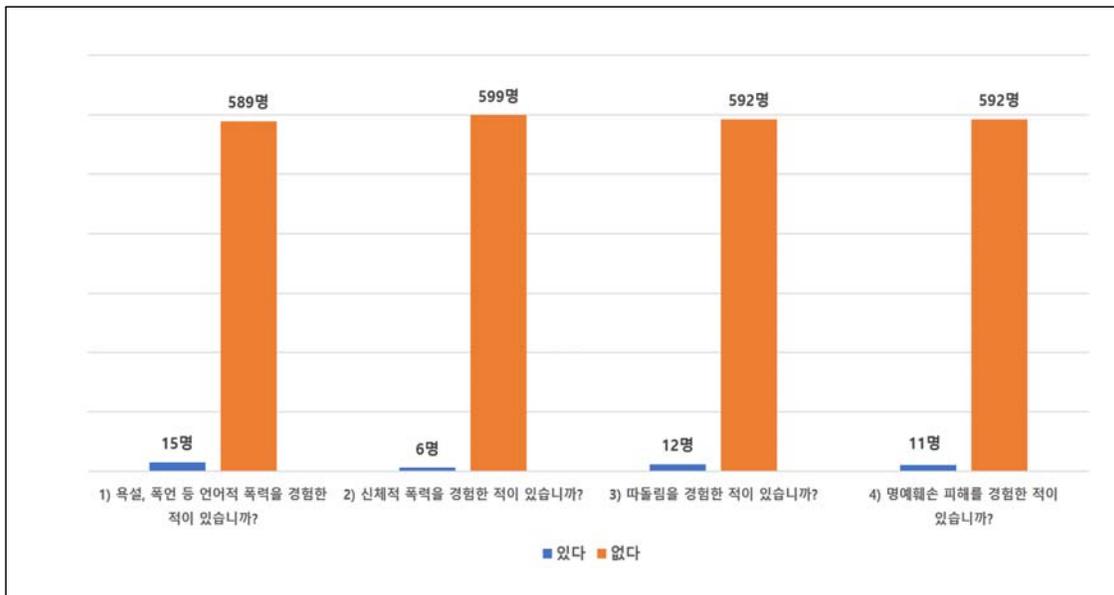
1)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문항은 ‘욕설, 폭언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로 15명이 응답하였다.

〈표 20〉 폭력 피해 경험 유무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1) 욕설, 폭언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5	589	604
2)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6	599	605
3)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2	592	604
4) 명예훼손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공공연하게 악의적인/고의적으로 소문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	11	592	603



[그림 14] 폭력 피해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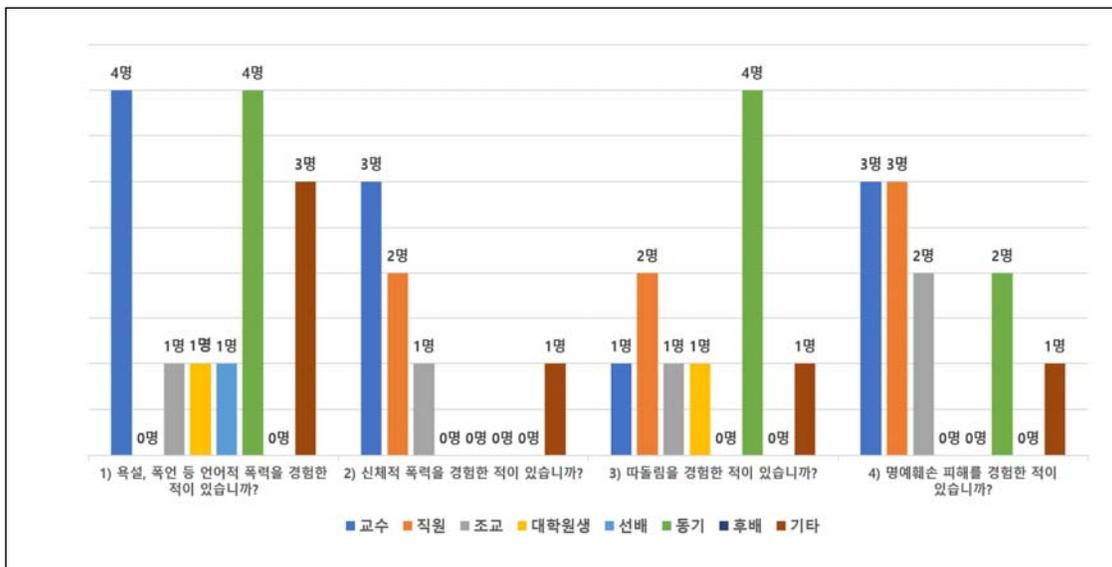
2)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에 대해서는 대부분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중 행위자에 대한 질문에는 '교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동기', '직원', '기타', '조교', '대학원생', '선배'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단위: 명)

구분	교수	직원	조교	대학원생	선배	동기	후배	기타
1) 욕설, 폭언 등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4	0	1	1	1	4	0	3
2)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	2	1	0	0	0	0	1
3)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2	1	1	0	4	0	1
4) 명예훼손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공공연하게 악의적인/고의적으로 소문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	3	3	2	0	0	2	0	1



[그림 15]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경우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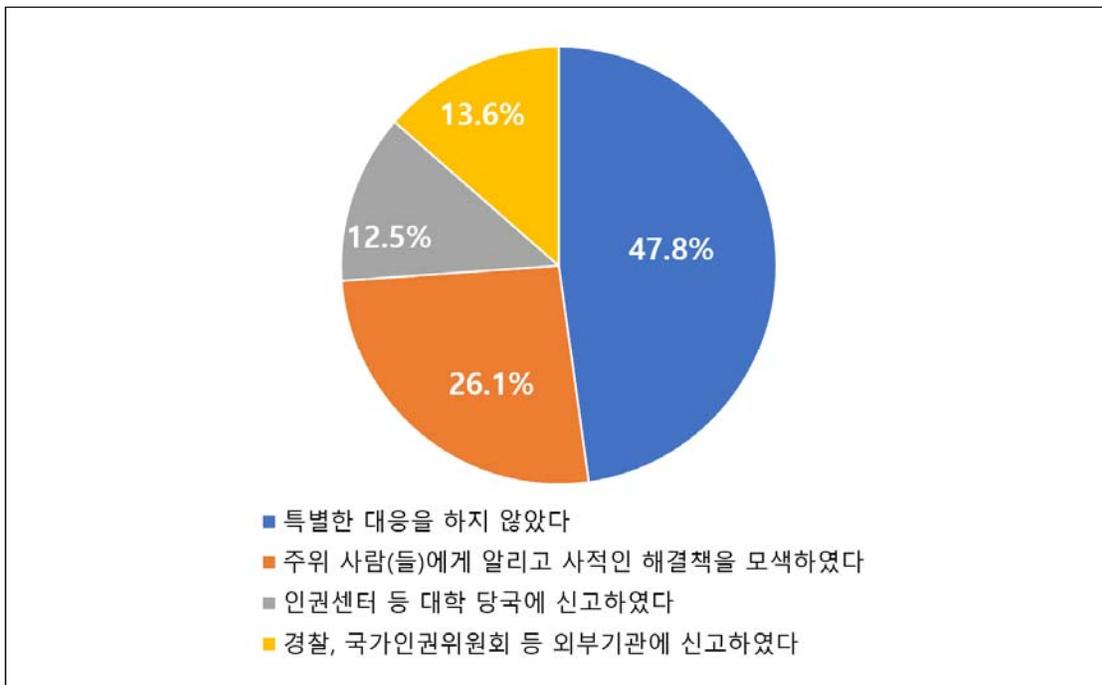
3) 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으로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42명 47.8%로 가장 많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23명 26.1%,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12명, 13.6%,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11명 12.5%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2〉 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42	47.8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23	26.1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하였다	11	12.5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하였다	12	13.6
전체	88	100



[그림 16] 폭력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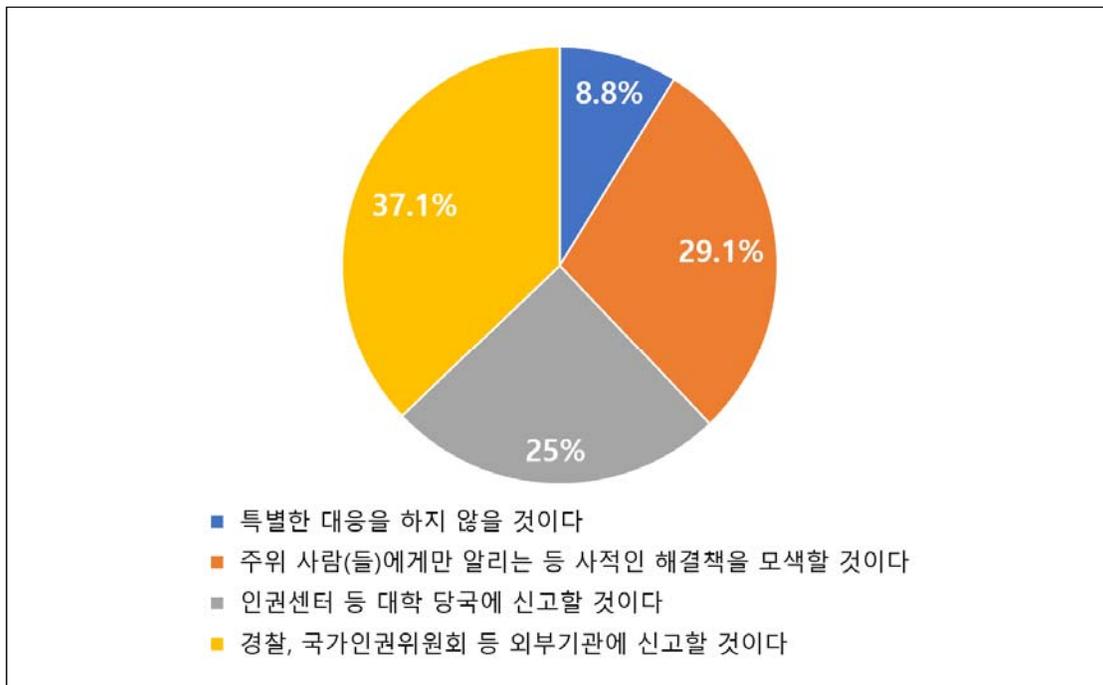
4)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가 225명 37.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176명 29.1%,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151명 25%,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53명 8.8%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3〉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단위: 명)

구분	빈도	퍼센트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53	8.8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다	176	29.1
인권센터 등 대학 당국에 신고할 것이다	151	25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	225	37.1
전체	605	100



[그림 17]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

마. 기타 피해 경험

1) 최근 1년간 우리 대학 재학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앞서 언급된 차별 및 피해경험 외에 언급되지 않은 유형의 기타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한 유무

기타 피해 경험으로는 장학금, 군 휴학으로 인한 복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수강 신청, 교수의 수업 방식, 자치활동, 도로 위 킥보드 때문에 다니기 힘들, 한 동아리 방에 두 동아리를 넣는 것, 동아리 내 연애 금지, 동아리실이 노후되어 장비를 못 쓰게 되었는데 학교 측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함, 의왕캠퍼스에 대한 행정실의 무관심과 무대응, 자치활동에 대해서 수업에 필수로 빠져야 하는 것 등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2. 인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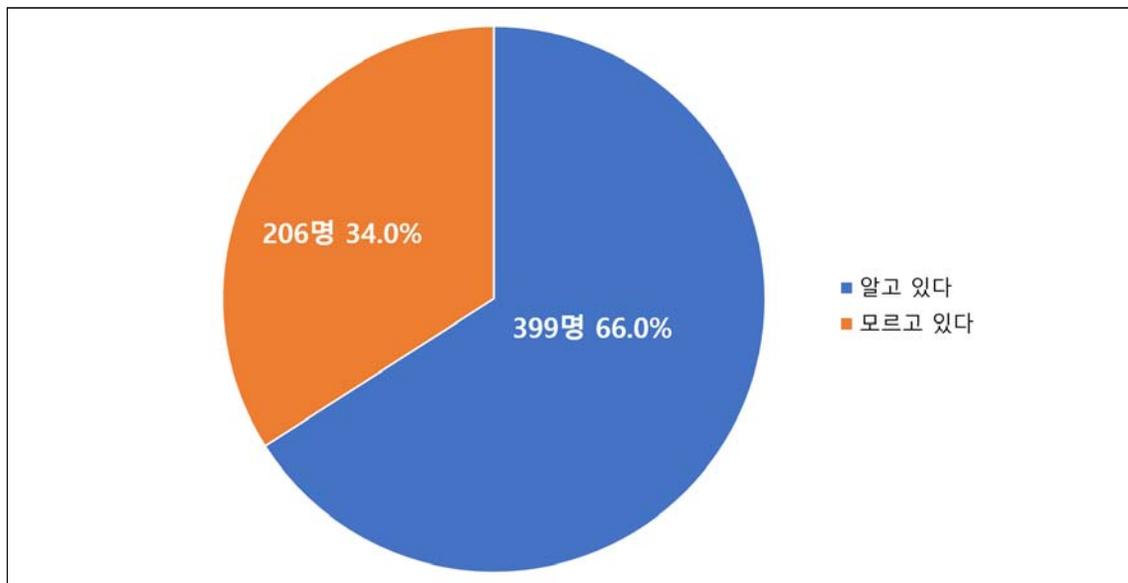
가. 인권센터 인지 여부

인권센터 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399명 66%로, ‘모른다’가 206명 34%로 나타났다.

〈표 24〉 인권센터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알고 있다	399	66
모른다	206	34
합계	605	100



[그림 18] 인권센터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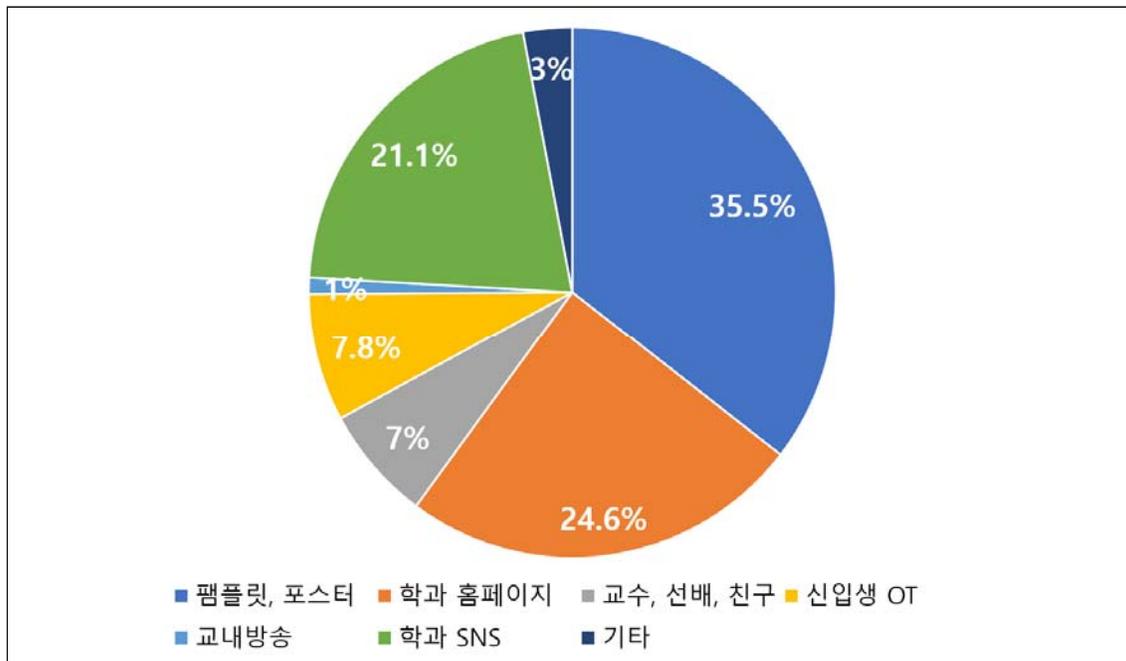
나. 인권센터 정보 경로

인권센터 정보 경로에 대하여 ‘팸플릿, 포스터’가 142명 35.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학과 홈페이지’ 98명 24.6%, ‘학과 SNS’ 84명 21.1%, ‘신입생 OT’ 31명 7.8%, ‘교수, 선배, 친구’ 28명 7%, ‘기타’ 12명 3%, ‘교내방송’ 4명 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5〉 인권센터 정보 경로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팸플릿, 포스터	142	35.5
학과 홈페이지	98	24.6
교수, 선배, 친구	28	7
신입생 OT	31	7.8
교내방송	4	1
학과 SNS	84	21.1
기타	12	3.0
합계	399	100



[그림 19] 인권센터 정보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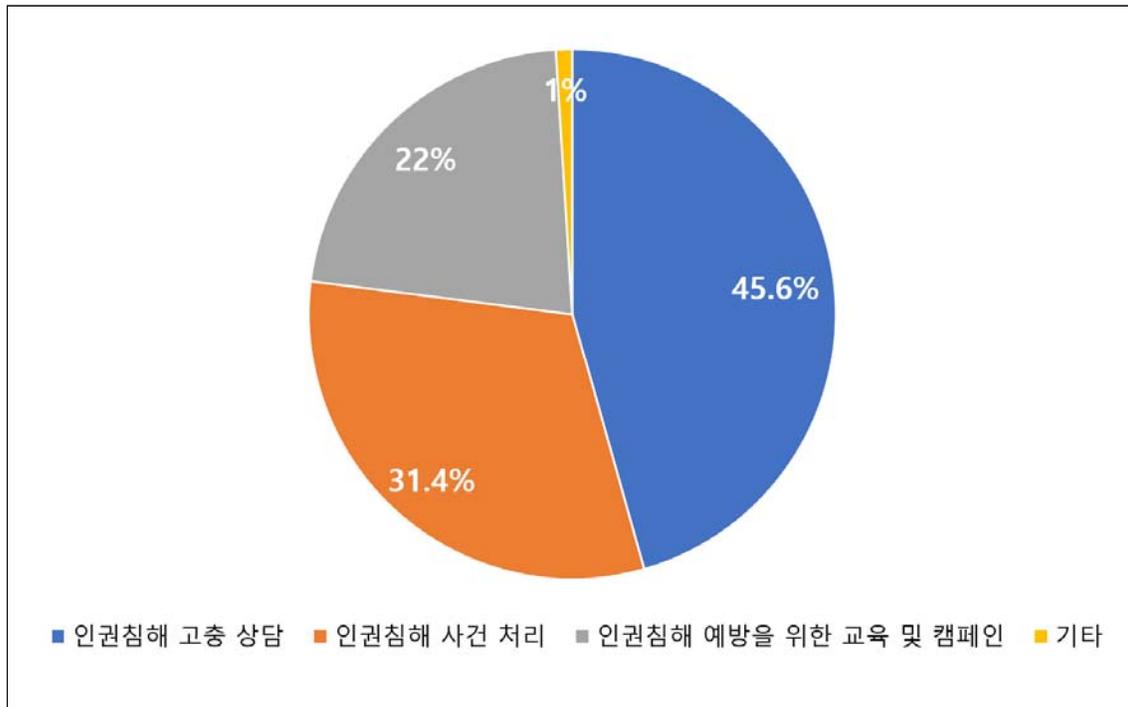
다. 인권센터 역할

인권센터 역할에 대하여 ‘인권침해 고충 상담’이 276명 4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인권침해 사건 처리’ 190명 31.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133명 22%, ‘기타’ 6명 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인권센터 역할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인권침해 고충 상담	276	45.6
인권침해 사건 처리	190	31.4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133	22
기타	6	1
합계	605	100



[그림 20] 인권센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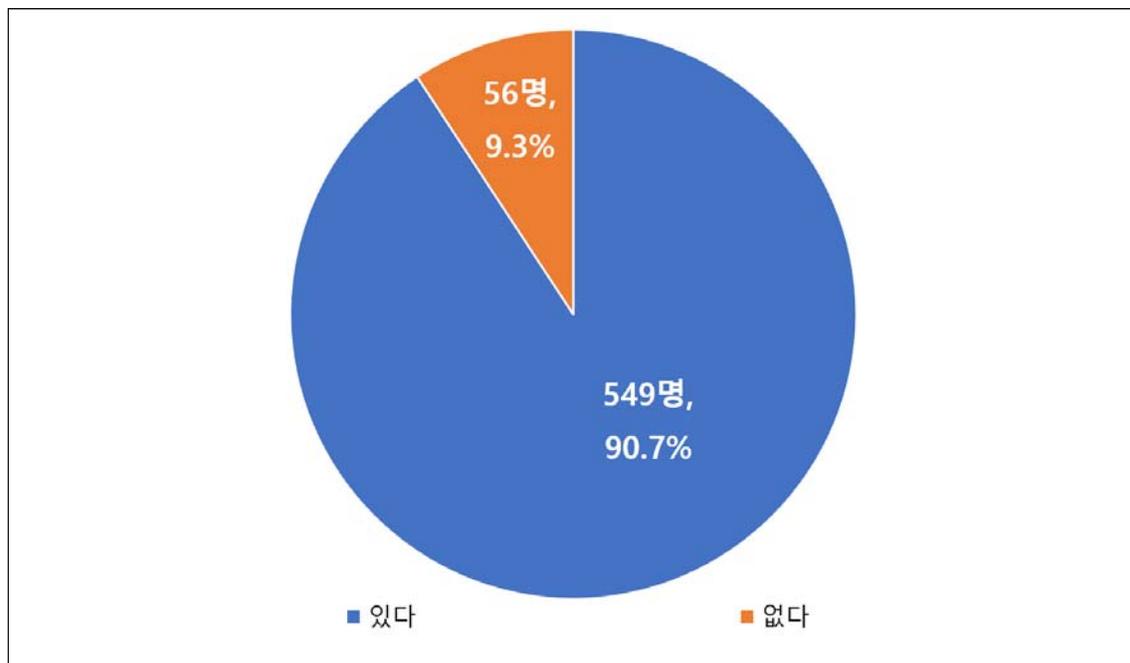
라. 인권센터 도움 요청 의사 여부

인권센터 도움 요청 의사 여부는 '있다'가 549명 90.7%, '없다'가 56명 9.3%로 나타났다.

〈표 27〉 인권센터 도움 요청 의사 여부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549	90.7
없다	56	9.3
합계	605	100



[그림 21] 인권센터 도움 요청 의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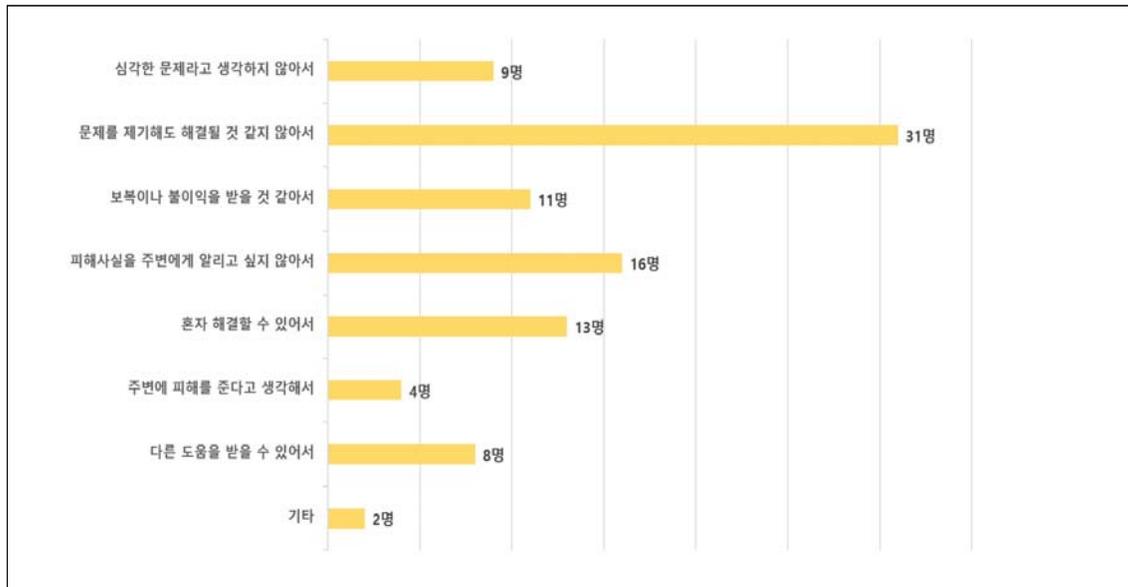
마. 요청할 의사가 없는 이유(중복응답 가능)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없는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16명,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13명,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11명,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9명,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8명,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4명, ‘기타’ 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요청할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빈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9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31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11
피해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16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13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4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8
기타	2
합계	94



[그림 22] 요청할 의사가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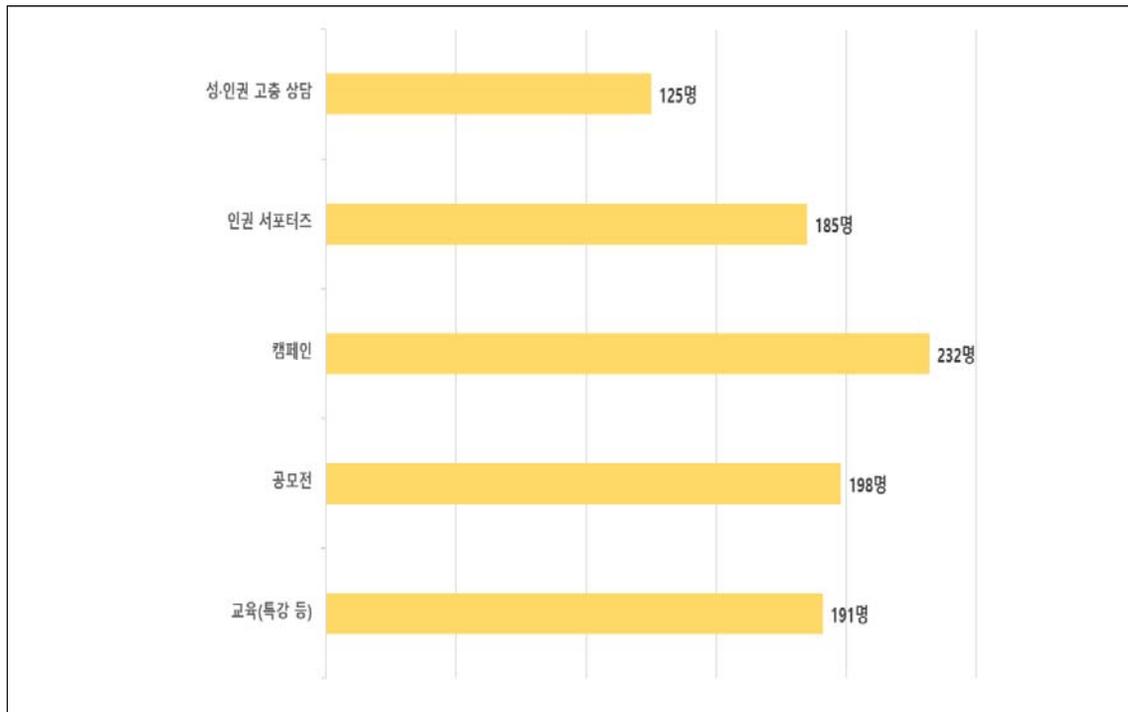
바. 참여하고 싶은 인권센터 프로그램(중복응답 가능)

참여하고 싶은 인권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캠페인’이 2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모전’ 198명, ‘교육(특강 등)’ 191명, ‘인권 서포터즈’ 185명, ‘성·인권 고충 상담’ 1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9〉 참여하고 싶은 인권센터 프로그램

(단위: 명)

구분	빈도
성·인권 고충 상담	125
인권 서포터즈	185
캠페인	232
공모전	198
교육(특강 등)	191
합계	931



[그림 23] 참여하고 싶은 인권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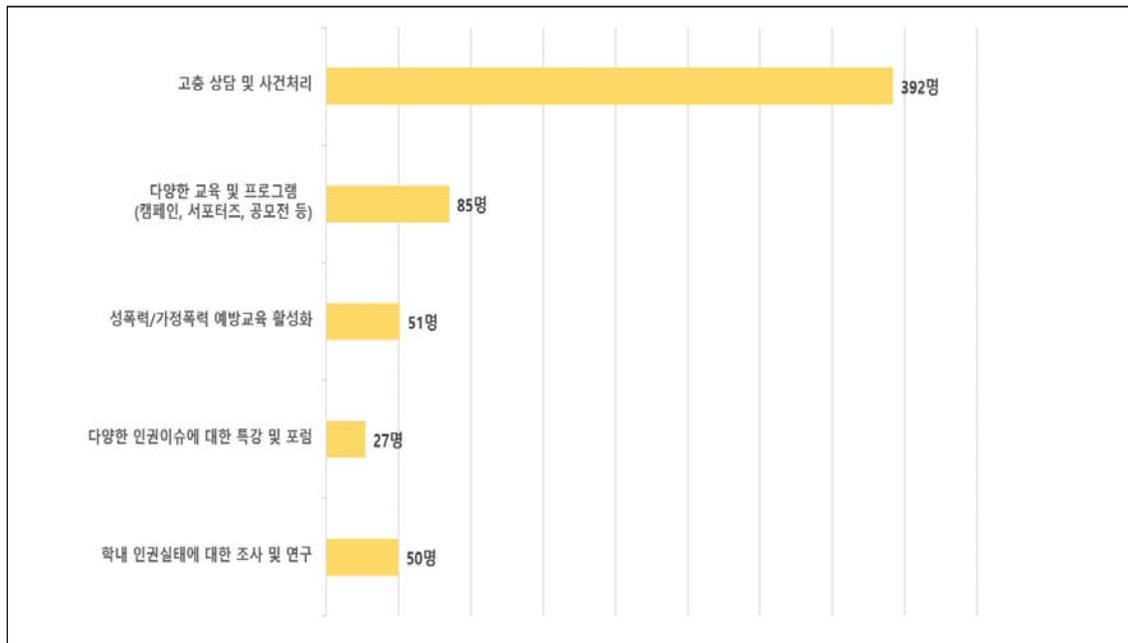
사. 인권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1순위, 2순위)

인권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1순위는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가 392명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캠페인, 서포터즈, 공모전 등)’이 245명으로 나타났다.

〈표 30〉 인권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1순위)

(단위: 명)

구분	빈도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	392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캠페인, 서포터즈, 공모전 등)	85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51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한 특강 및 포럼	27
학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50
합계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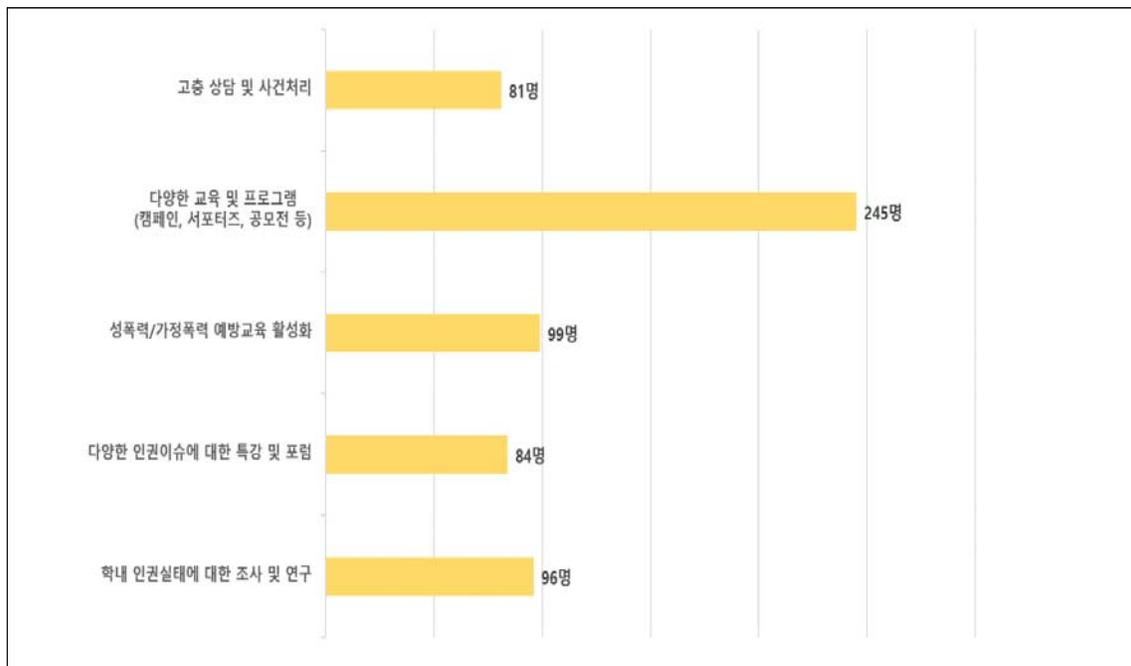


[그림 24] 인권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1순위)

〈표 31〉 인권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2순위)

(단위: 명)

구분	빈도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	81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캠페인, 서포터즈, 공모전 등)	245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99
다양한 인권이슈에 대한 특강 및 포럼	84
학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96
합계	605



[그림 25] 인권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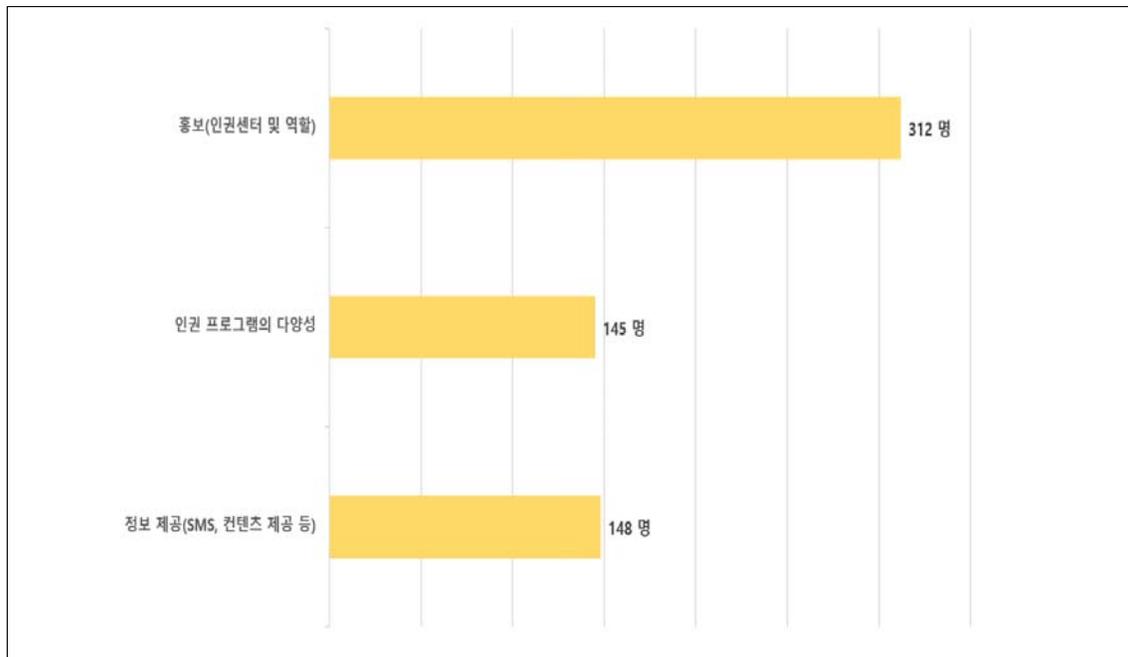
아. 인권센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1순위, 2순위)

인권센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순위는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가 312명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인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234명으로 나타났다.

〈표 32〉 인권센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1순위)

(단위: 명)

구분	빈도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	312
인권 프로그램의 다양성	145
정보 제공(SMS, 컨텐츠 제공 등)	148
합계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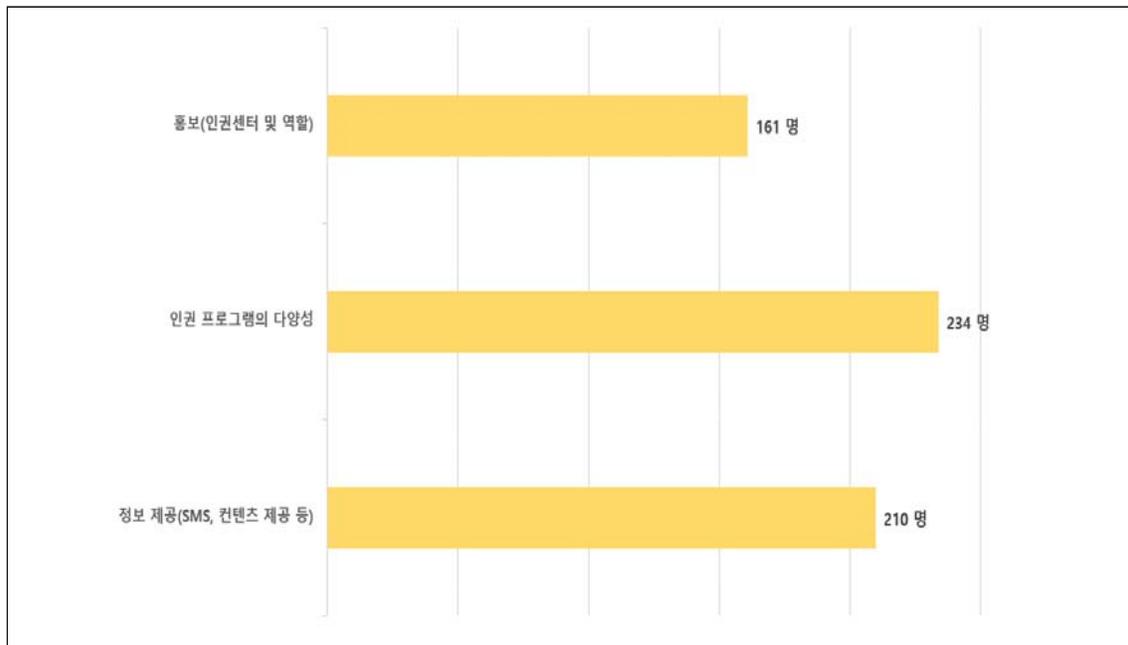


[그림 26] 인권센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1순위)

〈표 33〉 인권센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2순위)

(단위: 명)

구분	빈도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	161
인권 프로그램의 다양성	234
정보 제공(SMS, 컨텐츠 제공 등)	210
합계	605



[그림 27] 인권센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2순위)

IV. 제언

본 조사연구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2024학년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605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2024학년도 학생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센터 요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차별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전체 13개의 문항에서 '있다'의 응답이 나왔다.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과 관련해서도 전체 12개 문항에서 '있다'의 응답이 나왔다. 그뿐만 아니라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경험 역시 전체 문항에서 '있다'의 응답이 나왔다. 전체적으로 피해 경험을 겪은 적이 '없다'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피해 경험 여부에 대한 전체 문항에서 '있다'라는 응답이 있었고 행위자도 다양하게 나온 만큼 이러한 차별 피해,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폭력 피해 경험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의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행위별, 대상별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차별 피해 경험,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경험,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폭력 피해 경험 모두 피해를 경험한 후 가장 많이 취한 행동으로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피해 경험을 겪은 후 소극적인 대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사한 피해를 당할 경우 대응 방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적인 해결책을 도모할 것이다',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신고할 것이다'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센터에 대해 홍보하고 상담 및 신고 절차 안내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신고센터 활성화, 증평·의왕캠퍼스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인권센터가 어렵고 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센터 영역 부분에서 인권센터 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다'가 399명 66%로, '모른다'가 206명 34%로 나타났다. 2022년 개소 후 인권센터에서 실시한 다양한 프로그램(교육, 홍보, 캠페인 등)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생이 인권센터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학생들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꾸준하게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인권센터 정보 경로에 대해서 '팸플릿, 포스터'가 142명 35.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학과 홈페이지'가 98명 24.6%로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안내를 통해 인권센터에 대해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인권센터에 대한 안내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학과와의 지속적인 연계도 필요하다.

인권센터 역할에 대해 '인권침해 고충 상담' 276명 4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인권침해 사건 처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인권센터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현재의 체계적인 고충 상담 및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유지하되 더 좋은 방법을 찾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고충 상담과 사건 처리에서 더 나아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인권센터 도움 요청 의사 여부는 ‘있다’가 549명 90.7%, ‘없다’가 56명 9.3%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가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사실을 주변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할 수 있어서’,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주변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요청할 의사가 없는 제일 큰 이유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건처리 절차,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등을 통해 인권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과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인권센터 운영을 통해 구성원들이 인권센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권센터 프로그램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캠페인’이 2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모전’, ‘교육(특강 등)’, ‘인권 서포터즈’, ‘성·인권 고충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에게 다가가 소통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참여형 및 교육형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여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성·인권 고충 상담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인권센터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인권센터와 상담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인권센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1순위는 ‘고충 상담 및 사건처리’가 392명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캠페인, 서포터즈, 공모전 등)’이 245명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순위는 ‘홍보(인권센터 및 역할)’가 312명으로 나타났고, 2순위는 ‘인권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234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해 인권센터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센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인권센터에서는 센터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센터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교육 및 캠페인 운영, 공모전 실시,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 실태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다양한 내용 및 의견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차원의 도움을 주고자 하며, 나아가 인권 친화적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